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매진”

2017신학생 연합 개강수련회... 조용목 목사 '목회 리더십' 특강



김양인 목사
교단 총회장

본 교단 총회(총회장 김양인 목사) 산하 전국 신학생 연합 개강수련회가 지난 8월 21일(월)부터 22일(화)까지 1박 2일간 은혜외전리수양원에서 총회 신학발전위원회(위원장 차갑선 목사)와 신학교리국(국장 황용연 목사) 주관으로 총회신학교 및 지방 신학교 재학생과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골 3:14)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신학생들은 굳건한 믿음과 충만한 사명감으로 무장하고 더욱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여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역자,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의 든든한 기둥들이 될 것을 다짐하며 뜨겁게 기도하였다.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는 첫 날 특강에서 복음사역자의 리더십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솔선수범, 온유, 겸손, 연민, 즐거운 마음의 자세로 진실과 정직함으로 모든 일에 모범이 되며 성경적인 바른 목회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뜻에 합당하게 비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하고 말씀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신학생들이 되도록 격려해 주었다.

교단 총회장 김양인 목사를 비롯 증경총회장 이



조용목 목사
교단 정책위원장



이웅주 목사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
증경총회장



임웅재 목사
부총회장



신재영 목사
부총회장

용주 목사,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 부총회장 임웅재 목사, 부총회장 신재영 목사 등 여러 신학교 교수들이 이어진 기도회와 특강에서 설교와 강의를 맡아 은혜로운 시간을 인도했다.



차갑선 목사
신학발전위원장



황용연 목사
신학교리국장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역 감당

제66-4차 임원회

교단 제66-4차 임원회가 지난 8월 28일(월) 오전 11시 산정리순복음교회(담임 임웅재 목사)에서 열려 무더웠던 여름을 보내고 활력의 계절을 더욱 적극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교단 회계 윤병하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탁정신 목사의 대표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교단 총무 엄기설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엄 목사는 엡 6:24 말씀을 본문으로 '변함없는 사랑'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바울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든 변함없이 목숨걸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역자들이 될 것'



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이어 교단과 임

원회를 위해, 산정리순복음교회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한 뒤 엄기설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곧바로 회의에 들어갔다.

교단 총회장 김양인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차용성 목사의 회원점명 후 김양인 목사의 개회 선언이 있었으며 총무보고로 제6회 청소년연합수련회 개최, 2017년 전국신학생 연합개강수련회 개최 등의 내용을 보고했으며 재무 탁정신 목사의 수입보고, 교단발전기금 납입현황 보고 후, 회계 윤병하 목사의 지출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결의 및 안건토의 사항으로는 교회전출입 청원, 교회주소변경 보고, 교회명칭변경 보고, 교역자은퇴 보고, 교역자후직 청원, 지방회 조례인준 건, 교단마크 배지 제작 건, 제10차 APTA정기총회 참석 경비 지원, 전국여교역자 추계 성령충만수련회, 제66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9월 28일(목) 개최 등의 사항을 결의했다.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조용목 목사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3~17)

사람은 일생동안 여러 상황에서 수많은 질문을 받게 되고 거기에 가부간 답을 하며 살아갑니다. 사람이 일생 접하는 질문 가운데는 구대여 누가 묻지 않더라도 이미 운명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여부와 내용에 따라 그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의 현재와 미래를 영원히 결정짓는 것이 됩니다. 그 질문이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대답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기 나름대로 판단하여 말합니다. 예수님을 역사상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하여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와 같은 반열에 두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혹은 마호메트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역사상 위대한 교사, 자선구제자, 사회 개혁자, 사상가, 순교자 등으로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여러 메시아 중의 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호평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은 거리가 멀고 무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추측과 판단으로서 아는 것은 고립되고 무익합니다.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가운데 한 위로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동정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을 입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니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만민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와 같이 성경에 계시된 대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지식은 구원을 얻는데 필수 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이 “네가 믿느냐?”라는 질문의 중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신뢰란 믿는 것 이상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신뢰란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맡기려는 결단이 있고 노력을 통해 배우고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깊이가 주님을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렀고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로 인하여 믿음이 요동하지 않으며 심령 가운데 기쁨과 평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또한 맡겼기 때문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넷째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으며, 신뢰하는 것은 대체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누리려는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측면입니다. 이러한 신앙단계에 이르게 될 때 주님과 풍성한 교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말로서 표현하고, 헌신과 희생으로서 표현해야 합니다. 희생이 없는 사랑의 말과 노래만 공허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한다면 성도를 섬기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즐겁게 헌신하고 가까이 희생하게 됩니다.

(은혜외전리교회)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 취지

본 예회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감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경·소각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나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입학원서(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반영행만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회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 ucts5181@naver.com

ASSEMBLIES OF GOD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광복 72주년기념 독도기도회 개최

순교자 유가족, 국가유공자 등 160여 명 몇 참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광복 72주년을 맞아 순교자 유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릉도 독도 기도회를 개최해 순교정신 계승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했다.

이번 광복 72주년 특별기도회에는 손양원 목사의 딸 손동희 권사 등 40여 명의 순교자 유가족을 비롯해 독립, 국가유공자 등 80여 명과 한교연 임원 법인이사, 교단 총무, 독도수호위원회(위원장 주녹자 목사) 신하 119 독도지킴이 회원 등 총 160여 명이 참가해 일제에 항거해 목숨 바쳐 신앙을 지키고 나라 사랑의 정신을 계승해 우리 땅 독도를 일본의 침탈로부터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첫날 오후 7시 30분 포항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개회예배에서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는 광복 72주년을 맞아 우리의 영토인 독도가 불의한 나라 불의한 세력에 의해 침략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믿으며, 또한 우리의 국토수호 의지를 결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도수



호기도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특별히 이번 기도회에 순교자 유가족과 국가유공자들을 초청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이분들의 나라를 위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첫째 날 개회예배는 이우성 목사(개혁신대 총회장)의 사회로 주녹자 목사의 환영사에 이어 소병기 목사의 기도, 김효중 목사(법인이사)의 설교로 진행되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강동규 목사), ‘독도수호를 위해’ (홍찬

혁 목사), ‘한국교회를 위해’ (윤경일 장로) 특별기도하고 김옥자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둘째 날 한교연 독도방문단은 죽도에서 119독도지킴이 주관으로 기도회를 가졌으며, 저녁에는 저동침례교회에서 기독교민중양평의회(대표회장 원종문 목사) 주관으로 광복 72주년 기도회를 각각 가졌다.

셋째 날 오전에 독도에서 개최하려던 독도기도회는 높은 파도로 독도행 선박 운항이 중단되면서 울릉도 통구미 바닷가 거북바위에 160여 명이 모여 기도회를 가졌다.

한기보협, 광복 72주년 8.15 기념예배

제9회 신학세미나도 개최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지양철 목사)는 지난 8월 18일(금)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 연지동 여전도회관 14층 제2강의실에서 광복 72주년 8.15 기념예배 및 제9회 신학세미나를 개최했다.

1부 기념예배는협의회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사회로 공동회장 김길중 목사의 기도, 예장보수합동 총무김영호 목사의 성경봉독, 도교을 목사의 특별전양, 예장영신총회장 신요수 목사가 창 36: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알렐루아’이란 주제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예장합동총무부총회장 백경준 목사가 ‘국가안정과 통일, 협의회 회원교단, 단체발전, 한국교회, 차별금지법 취소’를 위하여 특별기도, 예장선교중앙 총회장 김요수 목사의 한글기도, 협의회 대표회장 지양철 목사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지양철 목사는 “성경의 원형을 찾아 보수원형 회복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고, 회복운동으로 ‘성경 원형’ 회복



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이 가진 전통과 신학, 교리 등이 시대의 상황과 변화에 따라 더해지면서 본래의 원형은 파괴되고 상실되어 성경의 원형과는 거리가 멀거나 전혀 다른 모습이 됐다”며, “보수원형 회복운동은 스북음의 본질회복 스교회의 본질회복 스예배의 본질회복 스말씀사역자의 본질회복 스제사장 본질회복 스제물드림의 본질회복 스목양의 본질회복 스그리스도인들 삶의 본질 회복운동으로

이를 통해 보수원형을 되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총장 민정식 목사의 광고 상임회장 한홍교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신학세미나는 신학위원장 한홍교 목사 사회로 조경근 교수의 일과나침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장한국 교수가 세 율령을 통한 구원계사와 역사연구란 주제로, 선환규 교수가 ‘성경의 언어 이해하기(들)’을 주제로 강의했다.

한국기독교연합 진통 끝에 창립총회 개최

대표회장은 추대, 상임회장단 집단체제로 운영



목회자유가족돕기운동본부 대표회장 김진호 목사)는 지난 8월 17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소재 감리교본부교회에서 하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갖고 박진술(상명대)을 비롯한 대학생 14명에게 각 2백만 원씩, 최동현(신흥고)군을 비롯한 고등학생 7명에게 각 1백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이날 감사예배 전달식은 사무총장 권종호 목사의 사회로 감사 박영민 목사의 기도, 도봉교회 이가영 집사의 찬양, 강승진 서울연회 감독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강 목사는 된 2:11~14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목사는 또 “김진호 감독·박장완 목사님은 장학금 전달 등 선한 일에 솔선수범하시고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감사의 뜻을 표하고, “이번 것을 통해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고문 윤원수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장학금 마련과 지급을 위해 1년 내내 동분서주하는 김진호 감독에게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고 오늘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큰 꿈과 이상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이 진통 끝에 창립했다. 한기연은 지난 8월 16일(수)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임시집관을 통과시켰다.

한기연은 앞으로 상임회장단의 집단 지도체제로 운영되며 한기연을 대표할 대표회장은 선거 없이 상임회장단에서 추대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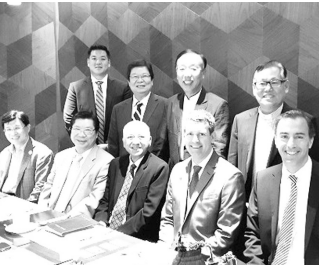
한기연은 이번 총회에서 법인은 한교연 법인을 활용하기로 했으며 통합 후속작업은 한교연 현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전명구 기감감독회장, 이성희 예장통합총회장, 김선규 예장합동 총회장이 맡아 주도적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한장총, 세계성서공회 총재 로버트 컨빌 박사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임원진들과 조찬 모임을 가져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채영남 목사, 이하 한장총) 임원들이 세계성서공회 총재 로버트 컨빌 박사와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임원진들과 지난 8월 18일(금) 조찬 모임을 갖고 2020년 빌리 그레함 서울전도대회에 관하여 설명을 듣고 한국교회 재부흥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한장총 대표로 참석한 유종현 목사(상임회장)는 “한국장로교회가 100여 년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집회의 활성화와 뜨거운 기도운동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다. 오늘날 나태해진 점이 분체전대, 재부흥의 계기가 될 2020년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



한다”고 하였다.

세계성서공회 총재인 로버트 컨빌 박사(Dr. Robert Cunville)는 빌리 그레함 목사의 뉴욕집회에서 모든 준비가 갖추어졌음에도 성과가 없었던 이유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

혜를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전하며 2020년 한국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을 전하여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더욱 힘을 얻게 하는 집회가 되도록 협력을 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오지영 목사(한장총 부회장)의 한장총 역사 소개 후 빌리 그레함 전도협회 데렉 포브스 목사(Rev. Derek L. Forbes)는 “2020년 빌리 그레함 한국대회의 이벤트 요소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지만 결국은 복음의 내용인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며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이해와 기도를 요청 한다”고 하였다.

한국기독교기도원총연, 광복72주년 특별기도회

수련회 갖고 광복의 참된 의미 되새기며 영적 재충전

사단복지법인 한국기독교기도원총연합회(이사장 정진수 목사, 대표회장 윤병이 목사)는 예장한미개혁총회(총회장 이윤교 목사)와 공동 주최로 광복 72주년 특별기도회 및 수련

회를 지난 8월 17일(목)부터 19일(토)까지 속초시 설악동 다비레안수원에서 가졌다.

중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 1:6)라는 주제 아래 열린 이날 수련회는 대표회장 윤병

이 목사, 공동회장 이순남 목사, 실행위원 김복동 목사, 이사장 정진수 목사가 강사로 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했다. 특히 이번 수련회에는 중견 탤런트 한인수 장로와 70년대 명콤디언으로 이름을 떨친 이순주 선교사(장례문화위원장)의 특별강증으로 은혜를 더했다.

첫날 개회 예배는 서기 김상호 목사의 사회로 대표회장 윤병이 목사가 마 7:21-23 말씀을 본문으로 ‘깨닫고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개회예배는 또 특별기도시간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홍보회장 이진득 선교사가, ‘한국기독교기도원총연합회를 위해’ 회계신경호 목사가 기도를 인도했다.



예선연, 광복72주년 기념예배 개최

세계평화와 예선연 부흥위해 기도

(사)대한예수교총회선교연합회(대표회장 강재원 목사)는 지난 8월 17일(목) 오전 11시 성은교회 본당에서 광복절 제72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이사장 경원수 목사의 사회로 총재 김인식 목사의 인사말, 대표회장 강재원 목사의 결 36:16-23 말씀을

본문으로 한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예배는 또 특별기도 시간을 갖고 ‘세계의 평화와 복한을 위하여’ 공동회장 조용진 목사가, ‘국가의 지도자들과 경제부흥을 위하여’ 자문위원 임성수 목사가, ‘국가안보

와 군을 위하여’ 자문위원 윤병석 목사가, ‘예선연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감사 권오식 목사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이날 예배는 회계 백정훈 목사의 한글기도, 사무총장 안진식 목사의 광고 후, 상임총재 김광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며 “물론 영혼구원 받은 것도 중요하고 개인구원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만이 아니라 육체를 포함한 전인구원이며 존재 전체로서 통합적인 구원임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현세적인 삶과 어떤 관계와 의미

‘바른목회상과 히브리어’ 세미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중국선교의 문을 열어 주실 것 기대

중국지방회

교단 선교국(국장 서정복 목사)에서는 지난 8월 14(월)부터 18일(금)까지 연태 레이드 메인호텔과 연태○○교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중국 내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보다 큰 비전을 이루어 가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며 단합된 모습으로 맡겨 주신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중국 각지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 중 21명의 사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선교국장인 서정복 목사(남원중앙교회)를 비롯해 선교국 차장 임형순 목사가 함께하여 바른 목회상과 히브리어 를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중국선교사들의 현지 상황을 고려하여 사진을 오리게 처리했습니다.

주신 사명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선교국장 서정복 목사는 세미나에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중국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전하고 환경과 여

건이 매우 열악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역자들이 다 될 것을 강조하고 선교사들을 위로하며 뜨거운 기도회를 주었다.

교단 부흥사회 임.회원모임 소식

부흥사회

교단 부흥사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8월17일(목) 낮 12시에 충북 청주시 청신교



회(김인찬 목사)에서 하계 임. 회원모임을 가졌다.

1부 개회예배에서 엄기설 목사(부흥사회 중경회장)는 염 6:24 말씀을 통해 “우리 부흥사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변화이 없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임. 회원회의에서는 부흥사회 가을 산행기도회 및 부흥사 연수교육세미나 개최건과 헬몬산기도원 신상연합부흥성회 개최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회의를 마치고나서 청신교회에서 제공한 한정식으로 함께 애찬을 나누며 각자의 상반기 사역내용을 소개하며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상주 반석교회 교단 가입 감사예배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8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상주 반석교회(담임 정인철 목사)에서 반석교회 교단 가입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정진화 목사(태전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부회장 모평수 목사(동해안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회계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민 28:1-10 말씀을 본문으로 ‘민수기 28장이 주시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제사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가깝게 여기지 말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상반제이듯 하나님께 날마다 점검받는 삶을 살아가며,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므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을 살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경북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우종유 목사(황상교회)는 축사를 통해 “진리를 찾아 구원길을 걷고자 결단하고 돌아온 목사님과 성도님들을 축하한다”고 전했고, 직전 지방회장 신재영 목사(새김전교회)는 “성도들이 앞으로 진리의 길을 가는 목사님을 받쳐주는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며 진리교단에 가입함을 축하한다”고 전했다.

이어 경북기독교총연합회 상임총무 김길동 목사(병령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충만을 권면하였고 중경지방회장 진영갑 목사(주전양교회)는 “WCC를 반대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교단에 가입했으니 교단의 정책에 순종하며 지방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권면하였다.

이어서 김광도 목사(임마누엘교회)의 헌금기도와 반석교회 담임 정인철 목사의 감사인사에 이어 중경지방회장 강대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축복 기도와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전예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

안산시흥지방회

안산시흥 지방회는 지난 8월 15일(화) 오전 11시 제일은사랑교회(담임 윤애복 목사)에서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윤애복 목사(제일은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오선복 목사(성현교회)의 기도, 회장 이규아 목사(산성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사 62:1-9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어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안산 중앙동으로 이전한 제일은사랑교회와 성도들에게 ‘종일 종자 기도로 교회를 세워가고 인간의 중앙동의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라’는 도전적인 말씀을 선포하였다. 이어 김영학 목사(생명나무교회)의 축사로 이전예배를 마쳤다.

제일은사랑교회는 안산 중앙동으로 이전하면서 전 물련동산교회에서 제일은사랑교회로(고전13:13) 명칭을 변경하고 새롭게 개



척하는 자세로 이전했다.

제일은사랑교회는 하나님께서 안산의 가장 큰 변화가이자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하는 중앙동에 교회를 세우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과의 사랑을 나누고자 착박한 땅에 교회를 하라하셨다고 전했다. 또 여러 가지 각종 속에서 교회를 시작하지만 감사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기쁨을 함께 누렸다.

진행했으며 이사회고 20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전예배까지 드리게 되었다.

이날은 8월 15일 광복절 공휴일이라 많은 성도들이 오지 못한다는 연락을 많이 받았지만, 엄청난 비를 뚫고 이전예배를 위해 안산 시흥 지방회 목사들과 많은 성도들이 참석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기쁨을 함께 누렸다.

조찬기도회 갖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 당부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사)아산시 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진등용 목사)는 지난 8월 10일(목) 오전 7시, 택민교회(담임 이정팔 목사)에서 제6차 조찬기도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이정팔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조이철 목사의 대표기도, 이정팔 목사의 성경봉독, 상임회장 김수홍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수 24:15 말씀을 본문으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기점으로 얻은 그 후 손들과 함께 오직 여호와를 섬긴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오직 예수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강조하고 동성애법과 차별화금지법을 배격하고 우리 모두 민족의 부흥을 위해 전심전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2부기도회는 상임회장 이승수 목사의 인도로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상임회장 황기식 목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공동회



장 김원진 목사,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지도위원 박자영 목사, ‘충남도 및 아산시 조례안 폐지를 위하여’ 장현원 목사가 각각 기도했다.

3부 보고회 순서에는 지도위원 이광로 목사의 인도로 실무회장 박귀환 목사(아산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의 시연합회 보고, 고문 이명수 국회의원의 국정활동보고, 오안영 시의회 의장이 시정보고를 하였으며, 대표회장 진등용 목사의 환영사가 이어졌다.

진 목사는 회원들을 격려하고 아산시에

서 동성애법과 차별화금지법에 대한 인권조례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아산시청과 아산 시의회를 저지하는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과 민족복음화를 위하여 더욱 힘써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어서 회원들의 건의사항으로 동성애법과 차별화금지법을 자유한국당 당론으로 정하여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인권조례안이 부당한 것을 지적하고 이 법안을 폐지시켜줄 것을 당부하고 상임회장 임용석 목사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기 월례회 갖고 바른복음전파 다짐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유석구 목사)는 지난 8월 10일(목) 오전 11시 보리울순복음교회(담임 이봉기 목사)에서 8월 월례회를 가졌다. 1부 예배는 서기 신근철 목사(구리순복음

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회계 김순형 목사(이집빛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에 이어 직전회장 임홍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가 설교했다.

임홍택 목사는 고루 3:1-3 말씀을 본문으로 ‘천거서를 받은 자 답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바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추천



장’이요 ‘펼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바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어야 함과 나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도를 바로 알릴 수 있어야 할 것”을 당부하고 ‘바로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는 모두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재무 김정순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임홍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 월례회는 지방회장 유석구 목사(예바다순복음교회)의 진행으로 신근철 목사의 서기보고, 이봉기 목사의 총무보고, 김순형 목사의 회계보고, 김정순 목사의 재무보고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한 다음 중경회장 이승수 목사의 마무리 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를 마치고 보리울순복음교회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짐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회의 방법 따를 것 당부

경기지방회

경기지방회(회장 최은규 목사)는 지난 8월 21일(월) 오전 11시 의정부시 금오동 470-1에 위치한 순복음은누리교회(담임 최금자 목사)에서 정기 월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지방회 총무 전하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김병호 목사의 기도, 서기 임형순 목사의 성경봉독, 중경회장 임용재 목사의 설교, 재무 안재봉 목사의 헌금기도, 그리고 중경회장 엄하석 목사의 축도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막 3:13-19 말씀을 본문으로 ‘알기 쉬운 복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목회의 방법을 따라 복음을 쉽고 분



명하게, 그리고 능력 있게 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회원 모두가 될 것’을 당부했다. 예배를 마친 후 곧

바로 정기 월례회로 이어져 각종 회무를 처리하고 9월에 있을 안보관광과 10월에 있을 경기중앙지방회와의 연합 체육대회 등을 논의한 후, 중경회장 김홍광 목사의 기도로 회의를 마쳤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목회의 행복

인천지방회

인천지방회(회장 이창모 목사)는 지난 8월 22일(화) 복인천교회(담임 김진홍 목사)에서 월례회를 갖고 지방회 각종 회무를 처리하였다.

이날 예배는 총무 송준호 목사(순복음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하여 서기 조성진 목사(충만교회)의 기도, 재무 김자영 목사(새소망순복음교회)의 성경봉독, 김진홍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시 1:1-3 말씀을 본문으로 ‘행복한 목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좁은 소명 안에서 사명은 주님이 주관하시기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하며 체험되어지는 목회는 행복할 수밖에 없다’고 전하였다. 설교를 마치고 김남근 선교사(로마디아



열광그라제교회)의 선교 보고, 교단과 지방회를 위한 통성 기도 후 이한숙 목사(사랑스러운교회)의 헌금 기도, 이창모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회무 처리 순서에서는 지방회장

이창모 목사가 주도하는 가운데 지방회 내규 확정 등 회무를 처리하고 은혜 가운데 월례회를 마쳤다. 회의 후에는 복인천교회에서 예약한 아울렛 뷔페에서 풍성한 오찬을 나누며 즐거운 교제 시간을 가졌다.

생명의 말씀



김 장 수 목사

· 경기북지방회 중경회장
· 예순교회 담임

한 사람이 잘못되면 그 가정 전부가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 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없었기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공의와 진리를 따르는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정이 서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이 사회와 나

한 사람의 존재와 가치

(렘 5:1)

리를 세우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소중하고 가치가 소중하므로 한 사람이 바르다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하고, 그 눈은 성경을 통해서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눈이 있는 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순회하며 보십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을 감찰하십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앓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높은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악히 다아시옵니”(시 139:1-3)

이 세상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후 심판대에서 만날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전쟁과 재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크게 두려워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일제 압박 36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6.25전쟁의 잣대에서 건져주시고, 지금까지 발전시키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어야 합니다.

둘째로, 유대나라는 죄로 인해서 기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다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아의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되 부지런히 일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셨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렘 26:3-4)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들려서 듣는

‘hearing’과는 다른 ‘listening’의 뜻으로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내 말 좀 들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요 5:25)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호 6:1)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뿐입니다. 젊은이들이 대학가에서 접을 치고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절경이나 무당을 찾다니면 멸망합니다.

셋째로, 한 사람의 의인은 국가의 앞길을 좌우합니다.

의인 한 사람의 가치는 정말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70년간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도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 사무엘의 절박한 기도가 나라를 살렸습니다(삼상 12:23)

한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라를 구했습니다(출 32:32)

때가 늦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늦으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한 수 없나니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라”(렘 15:1)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기회로 주십니다. 나라의 정래가 교회에 있고, 목회자에게 있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 국가적인 문제에서 오직 살 길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달빛이 태양빛을 반사하듯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반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빛을 반사하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자의 중요한 요인에는 확고부동한 용기, 확고한 계획성, 강한 책임감, 상세한 지식 습득, 호감가는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로 자스민 혁명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망명 온 무슬림에게 난민을 허용한 것이다.

지금도 우리나라의 난민법의 맹점(盲點)하여 일단 난민신청을 하면 2년 내지 3년을 거주할 수 있다(을 약속하고 한국에서의 행동 지침에 관한 매뉴얼까지 공유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난민 인정 과정이 쉽다고 알려지게 된다면 무슬림들이 한국을 목표로 합법적 거주민 지위를 얻으려는 시도는 끊임없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에는 이런 식으로 난민을 요청하고 있는 사람이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의 사건이 전례가 되어 이슬람 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변별력 없이 ‘난민 지위’를 인정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된다.

그러므로 난민 지위를 인정할 때보다 세밀하고 철저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그 나라의 정치적 상황을 판단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문제, 문화적 문제, 사회적 문제, 폭력과 살상의 문제, 잠재적 테러리스트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 정

주기철 목사, 연세대 명예졸업장



독립운동가 고 주기철 목사가 지난 8월 25일(금)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다. 연세대는 “주기철 목사가 일제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신앙인으로서의 모범을 보였다는 것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자 졸업장을 수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결대 운동철 총장, 포럼 특강



성결대학교 운동철 총장은 지난 8월 19일(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17 서비스기반 4차 산업포럼 및 국제학생 미래직업설계 창작대회’에 초청돼 특강을 했다.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진로직업교육학회가 주최, 4차 산업포럼운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큐란출판사, BIBF 출판



그리스도와 함께 비전과 꿈을 키우는 큐란출판사대표 이형규 장로가 지난 8월 23일(수)부터 27일(주일)까지 5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4회 베이징국제도서전(BIBF)에 참가했다. 이번 도서전에는 주변국 이란을 비롯해 86개국에서 2,407개 참가사가 참여했으며, 출판 전문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도 펼쳐졌다.

나사렛대, 홈페이지 품질 인증마크



나사렛대(총장 임승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를 획득했다.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는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 소외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표준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기관 홈페이지를 국가 공인 인증기관이 부여하는 인증제도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무슬림의 ‘난민지위 인정’ 문제는 없는가?

지난 8월 20일(주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차지원 판사)에서는 요르단 출신의 모 씨에 대하여 ‘난민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이 무슬림은 요르단에서 그들 나라는 반정부적인 활동을 하다가 요르단 정부로부터 압박이 가해지자 2014년 한국에 들어온 후 서울출입국관리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6년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고,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에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을 내게 된 것이다. 이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난민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되면 한국 국적자에 준하는 사회보장 혜택과 취업까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인권적’ 차원에서 무슬

림이 정치적 박해를 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슬림에 대한 난민 인정은 매우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정치적인 박해를 당했는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거나 국적을 취득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과거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들였다가 끔찍한 폭력과 테러로 인하여 ‘다문화 정책의 실패’를 선언한 경우가 허다하다.

현재 중동에서는 2011년에 시작된 ‘차스민 혁명’의 후세대들이 IS(이슬람국가)가 되어 세계를 폭력과 살상의 공포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다. IS는 지난 2014년 8월, 미국인 기자 제임스 폴리를 참수한 이후 그 해 9월 미국인 기자 스티븐 소틀로프와 영국인 구호활동가 데이비드 헤인스를 참수

하고, 10월에는 영국인 구호활동가 앨런 헤닝을, 11월에는 미국인 구호활동가 피터 케이지를 참수하였다.

그리고 2015년 1월에는 일본인 유괴와 하루나를, 2월에는 일본인 기자 고토 겐지를 참수하였고, 요르단 조종사 출신 마즈 알카사베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무슬림의 악행은 우리에게도 생생하고 끔찍한데 2004년에는 IS의 전신인 JIJ(유일신과 성전)가 한국인 고 김선일 씨를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이슬람국가 IS가 이와 같이 잔인하고 끔찍한 국제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단순히 무슬림들 가운데 ‘뿔뿔이’에 의한 부분적인 실수나 악행이 아니다. 이들의 폭력과 테러를 뒷받침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경전인 ‘꾸란’이며 무슬림들의 폭력을 부추기

는 사이드 꾸툼의 “진리를 향한 이정표”와 같은 폭력 교서(敎書)가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의 경전인 꾸란에서는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이 다수인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100여 군데가 훨씬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사이드 꾸툼은 “진정한 지하드는 현실의 삶 속에서 모든 대적을 동원하여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활용해야 함”을 교시하고 있다.

현재 이슬람의 폭력성을 대표하는 것이 IS인데, 이들은 과거 무슬림들이 급진적인 테러를 일삼았던 사이파가 아닌 무슬림의 다수를 차지하는 수니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는 이슬람원리주의의 실천인 ‘지하드’가 결코 온건파나 과격파의 구분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현실과 이슬람 원리가 이러한데, 우리 법원은 순진하게 ‘인권적 차원’이라는 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제66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

— 아 래 —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66차 총회 제2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일 시 : 2017년 9월 28일(목) 오후 1시 (12시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총회본부(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TEL. 02-2675-5181~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9월 21일(목)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31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김 양 인
총 무 목사 엄 기 설

기독교문화예술
진단

이상열 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한국크리스천문화학협회 이사, 전 서울예술신학교 학장, 전 바기오예술신학대학교 총장

예술선교의 신학적 배경 ④



4. 신앙공동체적 삶의 모습

기독교의 복음화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웃이 되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있다. 즉, 모든 이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의 실현에 있다. 이것은 남녀의 결혼, 가족 나아가서는 친족, 종족, 민족으로 확대되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기초한 자연 공동체와는 다르다.

또 국가와 같은 역사적 공동체가 아님으로 물론 예술이나 학술 등에 의해서 성립되는 정신공동체도 아니다. 자연적, 역사적, 정신적 공동체에는 다같이 한 계가 있고 제약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즉 신앙공동체는 그런 한계와 제약을 초월한다.

그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3-45)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상호 수용적 일치의 공동체이다.

본 회퍼가 말한 ‘타자(他者)를 위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이하나 조건이나 욕구나 그 전제가 없다. 이것이 신앙공동체를 지배하는 사람

의 법칙이요 원리이다. 그런 만큼 교회는 사람이 기쁘고 조화되고 만들어낸 인위적인 단체와는 다르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1-22)

여기에서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라고 반복되고 있듯이 교회의 성립은 온전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운영도 인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계획 그 자체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것이지, 인간에 의한 기구나 조직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태어난 유기체인 것이다(엡4:16).

사실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요소도 배제하고 있다. 또 인간적인 사고나 사상이나 법리 그것과도 전혀 다르다. 다시 말하면 세상 안에 있으나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이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이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봉사과 섬김을 동반한 선교이다. 초대교회의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같은

예배와 선교의 원형 혹은 원사태(原事態)를 보게 된다. 그 전형적인 양식이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집약되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그래한 플킹햄의 성공사례에서 그 모델 케이스를 읽을 수 있다.

“이 지역 복음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지역 사회의 문화와 생활 양식에 적응해야 하고, 이를 활용해서 개교회가 그 타전에 마련해 주어야 한다. 몇몇 성공한 목회자의 지침을 보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이루어 갔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면서 한번 그 중요성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는 그들 주민들이 도저히 그러한 곳에서(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성공적인 교회 성장의 산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 주고 있다. -종락- 그것은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그들 주민의 생활 양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 모여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진교에 참여하는 신앙 공동체적 삶 그 자체가 예배의 참된 모습이고, 선교의 산 표본이 아닐 수 없다. 이 같은 삶의 표현을 필자는 선교예술이란 용어로 지칭하고자 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여기에서 예술 선교의 가능성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전문인 미디어 선교사 양성
산학협력 프로젝트 발굴

CTS기독교TV · 영남신학대학교 MOU 체결

CTS기독교TV(회장 김정철)와 영남신학대학교(총장 오규환)는 지난 8월 21일(월) CTS멀티미디어센터에서 MOU를 체결하고, 전문인 미디어 선교사 양성 및 산학협력력을 위한 상호 정보 교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산학협력을 위해 상호 정보를 교류하는 한편 실질적인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 기관의 협력 활동을 더 널리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홍보 수단을 상호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CTS 김관상 사장은 “CTS의 다양한

방송 기획과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며 영남신학대학교의 미디어 선교 사역을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협약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호 업무 추진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영남신학대학교 오규환 총장은 “신학 교육 기관인 영남신대와 영상 선교 미디어인 CTS의 협력을 통해 상당한 시너지가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는다.”며 “영남신대의 신학 교육 콘텐츠들이 잘 활용됨으로써 CTS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주님의 사랑으로 ·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자’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 제5회 기도회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총재 송진태 목사,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는 지난 8월 24일(목) 오전 10시 서울 종로5가 한경직 목사 기념의 집에서 제5회 기도회를 가졌다.

이 기도회는 ‘우리 모두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임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

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란 주제로 열렸다.

기도회에 앞서 드려진 예배는 사무총장 이태희 목사의 사회로 부총재 최연복 목사의 기도, 이진완 교수(배리톤)의 특송, 김영수 목사(안산 다문화센터 원장)의 요 16:23-24 말씀을 본문으로 한 내 이름

으로 주시리라’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드려졌다.

이어서 총괄위원장 임종분 목사의 한국기도, 대표회장 이철민 목사의 인사 및 기도, 조광동 목사(새사람개혁운동세계본부 총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시인 영혜 박재현 목사의 성사낭독으로 시작된 2부 기도회는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3부요인, 육해공군, 학생 · 전교조를 위하여’ 상임회장 마진영 목사가, ‘교회본질회복, 말씀찬양 회개 구원, 보혈로 강력한 성령충만을 위하여’ 상임회장 민상봉 목사가, ‘다음세대 청소년, 북한방직, 평화복음통일을 위하여’ 상임회장 김장자 목사가, ‘민족의 복음화, 세계선교를 위하여’ 상임회장 임순철 목사가, ‘동성애특별금지법 반대, 이단사이비, 이슬람(IS) 방지를 위하여’ 고문 홍종성 목사가,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를 위하여’ 상임회장 최은유 목사가 기도제목을 갖고 간절히 기도했다.

이번 제5회 기도회를 가진 한국교회기도운동본부는 막힌 답을 기도로 허물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위해 모인 단체이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백석대 후기 졸업식 개최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중)는 지난 8월 17일(목) 오전 11시 교내 백석홀 대강당에서 '2016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을 개최했다.

학사학위 425명, 석사학위 325명, 박사학위 35명 등 총 785명이 학위를 수여했으며 실천신학대학원 ATA 과정 68명, 백석 후마니타스 최고위(CBO)과정에서 53명이 졸업장을 받았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특별히 백석 후마니타스 최고위 과정의 첫 번째 졸업생들이 배출돼 눈길을 끌었다. 백석 후마니타스 최고위 과정은 문화와 교양, 인문학과 비즈니스를 커리큘럼으로 하며, 기업 및 단체의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학 시절 학업이 우수했거나, 다른 부분에서 두각을

보였던 졸업생들에게는 설립자, 이사장, 총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총동문회장명의 상패가 수여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총장상 중 우수상을 수상한 사회복지학부 박지혜 씨(22·여)는 “4년간의 대학 생활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 세상 속에서 자랑스러운 백석인이 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전한 최갑중 총장은 “입학식에서 여러분을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훌륭하게 대학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나가게 되어 축하한다”며 “사회에 나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명을 갖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달라”고 말했다.

**5th
GOOD SOLDIER
훌륭한 군사**

2017.10.3.(화)-7.(토) 4박5일

대상/ 청년(19세이상)
문의/ 010-5145-3816

장소/ 괴산순복음교회
회비/ 없음(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엔학고레미니스트리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가들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와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17 전국사모단합대회

주제 : '주안에서 하나되자' (시 133:1)

♡♡ 초 · 대 · 합 · 니 · 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017년 전국사모단합대회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제7차 전국 사모단합대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 좋은 교단 좋은 사모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번 단합대회에 사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7년 10월 16일(월) ~ 18일(수) 2박 3일
| 장 소 | 제주도
| 대 상 | 교단 산하 각 교회 사모
| 문 의 | 2부회장 박경미 총무대행(H.P. 010-2167-7422)

2017 전국사모회 임원

고문	고문	증경 회장	증경 회장	증경 회장	증경 회장
					
최혜선 사모 (다락방교회)	김양숙 사모 (은혜와진리교회)	김양탄 사모 (포항안디옥교회)	차경애 사모 (진주은평교회)	김영숙 사모 (순복음거제중앙교회)	신동신 사모 (청신교회)
직전 회장	회장	수석부회장	1부회장	2부회장	총무
					
차추련 사모 (안동성곡교회)	한정은 사모 (가평순복음교회)	윤금자 사모 (목양제일교회)	한옥현 사모 (광양은혜와진리교회)	박경미 사모 (순복음승리교회)	김귀순 사모 (아세아순복음교회)
부총무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재무
					
신순철 사모 (순복음제일교회)	배은록 사모 (순복음소망교회)	김세희 사모 (괴산순복음교회)	신명희 사모 (부강순복음교회)	김병희 사모 (은혜와승리교회)	김숙향 사모 (안성평강교회)



주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사모회 후원 : 총회 및 각 지방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교역자국 추계 성령충만 수련회

주제 : 주여! 성령의 불을 주소서(눅 12:49~50)

모시는글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폭우에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여교역자국에 새롭게 세움을 받은 한순남 국장입니다.
지면으로 인사드려 송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세워주신 것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임을 알고 더욱 겸손히
총회의 모든 선배님들의 조언과 총회의 행정에 충실하며 회원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는 추계수련회로 모든 회원 목사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정책위원장님과 총회장님 그리고 특별강사님들을 모시고 영육의 꼴을 통해 힘을 얻고자 하오니
여교역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여교역자국 국장 한순남 목사 -

강사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은혜와진리교회



김양인 목사
총회장
목양제일교회

“함께 함이 기쁨이요 능력입니다”

- | 일 시 | 2017년 9월 18일(월) 오후 2시부터 ~ 20일(수) 낮 12시까지
- |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수양관(031-227-5992~3)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세곡리 120(왕림2길 76)
- | 대 상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산하 전국 여교역자 전회원
- | 주 관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 | 문 의 | 국장-한순남(010-2853-8190) · 차장-김바울(010-852-9340)
- | 후원계좌 | 농협→352-1333-4784-13 예금주 한순남

※여교역자국 연중행사

1.추계 성령충만 수련회 2.송년 기도회 3.춘계 세미나



일 정 표

시 간	18일(월)	19일(화)	20일(수)	
06:00 ~ 07:00		새 벽 예 배		
07:00 ~ 08:00		아 침 조 식		
08:00 ~ 09:00		휴 식	친교의 시간	
09:00 ~ 10:00			폐회예배	
10:00 ~ 11:00		특 강 1		
11:00 ~ 12:00		점 심 식 사		
12:00 ~ 13:00				특 강 2 (김양인 총회장)
13:00 ~ 14:00		접 수		
14:00 ~ 15:00		개회예배 설교 : 조용목 목사	휴 식	집 으 로 ↓ ↓ ↓
15:00 ~ 16:00		친교의 시간	특 강 3	
16:00 ~ 17:00	저 녍 식 사			
17:00 ~ 18:00	부 흥 회	부 흥 회		
18:00 ~ 19:00				
19:00 ~ 20:00	자 유 시 간 및 취 침			
20:00 ~ 21:00				
21:00 ~ 22:00				
22:00 ~ 23:00				
23:00 ~ 24:00				

※위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수도 있습니다.



조 직
임 원 단
전 국 지 부 장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 국 여 교 역 자 국

국 장 한순남 목사

CTS 독도 기도원정대 나라사랑 부흥집회

국내 크리스천 500여 명 독도와 울릉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

국내 크리스천 500여 명이 '2017 CTS 독도 기도원정대 나라사랑 부흥집회'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다.

CTS기독교TV(회장 감경철, 이하 CTS)는 광복절 당일인 8월 15일(화)부터 17일(목)까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와 울릉도를 방문해 기도하는 '2017 CTS 독도 기도원정대' 행사를 개최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모여 기도했던 기독교의 정신을 이어받아, CT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2017 독도 기도원정대'는 2016년 'CTS 독도 기도원정대'와 'CTS 순교자의 길(전라남도 기독교 순교유적지)', 올해 3월 'CTS 제주도 기도원정대'와 6월 'CTS 백령도 기도원정대'에 이은 5번째 국토 탐방 기도 행사이다.

행사 첫날 울릉한마음회관에서 열린 광복 72주년 기념 국가와 민족을 위한 부흥 대성회는 울릉기독교연합회 부회장 김신영 목사(울릉제일교회)의 인도로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참석자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한 해에 마련된 기도원정대를 통해 모두가 진정으로 화개하는 마음으로 성경과 성령으로 돌아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길', '한국교회와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을 통해 하나가 되어 세계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세계교회를 섬기길', '동북아의 평화와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 되길 간구하며 새롭게 결단하길', '국가적인 위기상



황과 사회 갈등, 동성애 문제와 이슬람 문화의 전방위적 확산 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민족과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는 한국교회가 되길' 간절히 기도했다.

이번 '2017 CTS 독도 기도원정대 나라사랑 부흥집회'의 기도로 시작한 첫날 대성회에는 기독교계 안팎의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울릉군 최수일 군수가 울릉도를 방문한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환영인사를, 울릉군기독교연합회 회장 정치호 목사(도동침례교회)가 이번 대성회에 축사를 전했다. CTS 김관상 사장이 울릉도 도민들과 기독교계의 환영에 답사를 전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인 CTS와 함께 일본의 역사 왜곡과 대게시마의 날 지칭에 맞서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독도에서 개최하는 최초의 연합행사인 '우리 땅

독도 여행'은 은혜로운 시간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CTS 감경철 회장은 "그 어느 때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송고한 회생을 하신 분들을 기리는 광복절에 민족의 섬 독도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인 '우리 땅 독도 기도원정대'가 개최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믿는다"라며 "외로운 섬 독도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귀한 사역에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특별히 '2017 독도 기도원정대'는 참석자들의 편의를 위해 '강동항', '목호항', '후포항', '포항항'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선박을 이용 울릉도로 출발했으며, 독도에 입도한 모든 참석자에게는 '독도 명예 주민증'이 발급되었다.

희망스튜디오 스마일게이트, 희망전달

구세군 안산 다문화센터, 학대 피해 이주 아동 돕는다

구세군안산다문화센터(센터장 최혁수)는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이사장 권혁빈)와 학대피해 미등록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그룹홈 '스마일하우스(Smile House) 2호' 설립 및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7일(목)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학대 피해를 입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생활공간인 그룹홈 '스마일하우스 2호'를 오는 9월에 개소하고, 학교생활 적응 및 심리정서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

미등록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은 이주노동자인 부모의 과체류 등으로 국내 체류자격이 가지지 못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이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는 국내제도는 한국 국적의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대 및 방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미등록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이주노동자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기도 안산 지역에 '스마일하우스 2호'를 개소하고 주거공간 및 생활공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학대 피해 미등록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개별학습 지도와 통학차량운행들을 제공하고 상담 및 예술프로그램을 활용한 심리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권연주 실장은 "국내에 미등록 이주 아동 및 청소년은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학대를 당하더라도 추방될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교육, 복지, 의료 혜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스마일하우스 2호를 통해 학대 피해 미등록 이주 가정 아동 및 청소년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한 신앙생활 위한 성서적 토대 제공

베델성서 '성서편' 지도자강습회

한국베델성서연구원은 오는 9월 4일(월)부터 6일(수)까지 3일 동안 경주에 있는 경주감리교회(담임 목사 이원목)에서 베델성서지도자강습회를 실시한다.

1974년부터 시작된 한국베델성서연구원(원장 이

홍렬 목사)은 초교파적으로 널리 사랑받는 세계적인 성경교육 과정인 '베델성서연구'를 한국화시킨 프로그램(성서 편, 생활 편, 신앙 편, 구원 편, 예배 편, 자녀 교육 편)을 한국 교회에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한국베델성서연구원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

은 성서 편 교재로 구약 20과, 신약 20과 총 40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교재는 성도들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흐름을 구속사 관점으로 조망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통해서 치우침 없이 성경 전반을 골고루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조 교재로 함께 사용하는 개념 카드와 상징 그림을 통해서 누구나 성서의 주요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다. 문자(주 교재)와 이미지(보조교재)를 활용하는 이 교재들을 적극 활용한다면, 지역 교회 전체적으로나 성도들을 개별적으로나 건강한 성서적 신앙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이다.

한국베델성서연구원이 추구하는 목표는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을 위한 성서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거의 반세기에 걸쳐서 300여 회의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한 이유이다. 지금까지 45개 교단 1만 6천여 명의 목회자가 지도자 과정을 수료하고, 47만여 명의 성도들이 베델성서 프로그램을 공부했다.

(문의 02-3789-4276)

제2회 성결봉사학교 성황리에 개최

예성총회 사회복지위원회 주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김병천 목사)가 주최하고 총회 사회복지국과 성결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주관한 '제2회 성결봉사학교'가 지난 8월 11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성결대학교 예성80주년기념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한 봉사학교는 기회식과 특강, 청소년 자원봉사 기획서 작성법 및 장애체험 방법, 장애체험 및 조별 활동, 조별 발표 순으로 일정이 진행됐다. 봉사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배려하는 마음

을 갖게 하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직접 기획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금년 봉사학교에서는 강현구 교수(매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장)가 강사로 나서 봉사학교에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 기획과 참여에 관한 내용을 전달했으며, 류승용 관장(인양시 비산종합사회복지관)과 조명희 센터장은 장애체험 및 조별 활동을 진행했다.

또 마지막 순서로 이정소 목사(사복위 사무총장)가 진행을 맡은 조별 발표 및 평가회 시간에는 조준범 교수(성결대 사회복지학부)가 총평을 맡았다.



하나님이 주신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아로니아는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관목으로 '블랙초크베리'라고 불립니다. 가혹하고 척박한 생육환경에도 강력한 생명력을 자랑하는 아로니아는 중세 유럽 왕족과 귀족들이 질병예방과 치료의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면서 '왕의 열매' (King's Berry)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아 왔습니다. 아로니아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과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신비의 열매로서 현대인의 신체의 여러 질병과 노화를 예방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탁월한 성분

아로니아는 칼륨과 같은 다양한 유기 미네랄과 다양한 비타민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로니아는 세포가 노화되면서 발생하는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폴리페놀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방지할 뿐만 아니라 항암효과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로니아 속에는 안토시아닌은 포도의 79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약 4배에 이르는 양이 포함되어 있고, 카테킨, 레스베라트롤, 퀘르세틴 등의 폴리페놀도 포도의 11배, 크랜베리의 11배, 블루베리의 5배 이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로니아 생과에 포함된 영양성분



효능

- 강력한 항산화 작용 : 유해 활성산소 제거
- 항당뇨 작용 : 혈당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
- 항암, 항염, 항고혈압 (위 보호 효과) : 악성세포의 성장을 막고 세포 자살을 유도
- 소염, 항균살균, 항알러지 작용 : 관절염 예방 및 치료, 알러지 증상 개선
- 시력보호 : 로돕신이라는 색소의 재합성을 촉진시켜 눈의 피로, 시력을 개선
- 피부 노화방지 : 활성산소를 중화해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피부 손상 노화 방지 및 보호
- 심혈관계 질환 예방 : 혈전발생 억제, 콜레스테롤 억제, 고혈압 예방, 심장질환 및 뇌졸중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 기억력 개선 효능
- 면역력 강화

섭취 방법

아로니아는 단맛과 신맛 그리고 짭은맛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였다가 그냥 먹거나 우유나 요구르트 또는 과일주스와 함께 믹서기로 갈아서 맛있게 마실 수 있습니다. 또 잼 또는 썰러드로 먹을 수 있고 건강에 더욱 좋은 호소 발효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100세 시대에 접어든 한국인의 건강을 책임질 최고의 과일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의 교역자 및 성도 여러분, 무농약으로 재배한 좋은 품질의 아로니아를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교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코 집시촌에서 뷰티서비스

국제뷰티구호개발NGO (사)월드뷰티핸즈

국제뷰티구호개발 NGO (사)월드뷰티핸즈(WBH, 이사장 정한일, 회장 최에스터)는 8월 12일부터 8월 15일까지 체코 프라하와 폴란드 국경과 인접한 오스트리바 지역의 벨카 크라쉬 집시촌, 체스키 테쉬 사도센터, 브르타 집시촌, 트리네츠 복음센터를 비롯한 체코의 집시와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찾아 뷰티서비스를 실시했다.

WBH 뷰티서비스 국제협력단의 '새 모습 희망찾기' 프로젝트를 통해 체코지역 보헤미안 집시촌 중심의 소외된 청소년들과 집시에게 꿈을 심는 뷰티 서비스를 실시했다.

이 기간 동안 뷰티서비스에는 최에스터 교수(신한대학교 뷰티헬스사이언스학부)와 최은주 교수(명지전문대 뷰티메니지먼트과) 김연미 네일아티스트와 정순옥 간호사(지원봉사 대표)를 비롯한 각 분야 지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뷰티서비스를 통해 이분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뜻 깊은 행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월드뷰티핸즈는 동유럽

을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뷰티와 의료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인 소셜서비스 구축을 통한 지향과 지립을 위한 지원봉사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지역연구를 실시하여 국제뷰티구호개발NGO로서 해외뷰티서비스를 확대 진행할 예정이다.

(사)월드뷰티핸즈는 서울역 노숙자와 독거노인,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 뷰티서비스 활동과 다문화 가족, 북한동포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뷰티기술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포함한 저개발국 주민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확대시켜 진행하고 있다.

(사)월드뷰티핸즈는 K-뷰티 헤어미용, 메이크업, 피부미용, 네일, 화장품 등 5대 분야의 전문 교수와 기관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자치부 1365 지원봉사 인증기관으로 뷰티지원봉사자 신청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메일 wbhngo@naver.com과 www.wbhands.org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기아대책, 제12회 전국후원이사 선교대회

목회자로 구성된 전국후원이사 1,200여 명 한자리에 모여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회장 유원식)은 지난 8월 21일부터 1박2일 동안 경북 경주 테이호텔에서 약 1천 2백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다시 거룩한 사명으로'라는 주제로 제12회 전국후원이사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기아대책 전국후원이사 선교대회는 기아대책을 통해 국내외 소외된 이웃을 후원하고 지립을 돕는 후원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활동의 방향과 정체성을 선포하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년에 한 번씩 개최한다. 기아대책 후원이사는 기아대책의 비전과 사역에 뜻을 같이한 전국의 목회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는 이선영 기아대책 홍보대사(KBS 아나운

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민광 목사(영천제일교회·경주영천후원이사회장)의 설교로 1부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유원식 기아대책 회장의 강연과 사역보고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인도, 태국, 카메룬의 기아대책 사역 현장을 연결해 현장에 있는 아동들과 기대봉사단이 전국후원이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라이브 토크' 순서가 마련되었다. 또한 첫째 날 저녁에는 기아대책 홍보대사들이 출연하는 '기대콘서트'를 진행했으며 김명식, 민호기, 강찬, 유은성 등 국내 CCM계를 대표하는 찬양 사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리를 빛냈다.

가족세트전도 참관기

하나님 말씀의 큰 능력 깨달아

몇 년 전 부산에서 목회자 전도 모임에 나가 평내순복음교회를 담임하는 박영수 목사를 만났다. 이 분은 가족세트 전도에 관하여 최고의 전도지침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 말씀에 의하면 자신은 대형교회에서도 전도 왕을 했고, 현재 교회를 개척한 지 12년 만에 큰 부흥을 이루고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고 했다. 자칭 전도 왕들이 하도 많아 반신반의하며 집회의 모든 과정을 듣게 되었다.

집회에서의 말씀은 다른 전도 방법들과 약간 다른 것 같았지만 전체적으로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은 똑같았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못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는 동의하면서도 하도 많은 전도 방법들을 들었기 때문에 이 전도 방법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저 몇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만 생각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다. 전도용품은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의외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잠시 잠깐 한두 시간 정도 전도를 하는데 첫날은 5명이 주님을 영접했고, 둘째 날은 10명이 한두 시간 만에 주님을 영접했다. 다른 그 무엇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 1:12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1분 동안

회개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면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사랑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부터 예수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전국 가는 그 날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전부이다. 정말 채 1분도 안 되는 이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못 영혼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접기도를 따라 하며 교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박 목사님의 겸손한 때문이다. 무슨 말이나면 아무도 오려 하지 않는 이 외딴 섬에 오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와 주었다. 박 목사님은 그 누구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불러주지만 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알고 그것도 자비를 들여가면 서간다는 것이다. 박 목사님의 이런 겸손한 모습이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박 목사님을 크게 쓰시게 하신 원인이 아니었나 생각해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쓰시는 종을 통하여 많은 영혼 구원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기저장교회 사도 김미영

동영상: <http://blog.naver.com/boys257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학장 박영수 목사
031)5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양평군청 MOU

지역사회 발전 및 교육협력을 위한 다각적인 협력방안 모색키로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김영욱)는 양평군청(군수 김선교)과 지난 8월 14일(월) 양평군청에서 지역사회 발전 및 교육협력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양 기관의 기관장과 교수,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으며 각 기관은 앞으로 인력과 시설교류를 통해 평생교육 분야 지문과 지원, 지역사회 발전 협력,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지원, 우수인재 양성 및 장학사업 협력, 다문화가정 교육협력에 상호 협력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선교 양평군수는 "양평군의 대학과 마을이 함께 연계하고 협동하여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체험을 제공하고 지역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욱 총장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가 양평군 지역의 교육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대학이 갖고 있는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협약이 이루어짐에 따라 향후 양평군의 주민과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는 국제적이고 교회 연합적인 대학으로 1974년 개교 이후 지난 40여 년 동안 많은 세계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학부과정으로는 신학과, 선교문화복지학과, 기독교교육상담학과, 선교영어학과, 선교중국어학과가 있으며 자격증 취득, 복수 전공, 국제 교류, 그리고 타문화권 체험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다.



의혹과 의문점이 가득한 오대양사건 30년

월간 현대종교 탁지원 발행인

30년 전, 1987년 8월 29일 경기도 용인 오대양공장 구내식당 전장에서 사장 박순자 씨를 비롯해 여성 28명, 남성 4명, 총 32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손과 발은 스카프와 내의를 찢어 만든 끈으로 묶인 채 시신은 2중, 3중으로 쌓여 있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집단자살을 한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에는 이모 씨 혼자 31명을 목 졸라 죽이고 자살했다고 사건을 종결지었다.

하지만 당시 직접 현장을 목격했던 고 탁명한 소장은 경찰의 발표가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며 "32명 모두가 다 가사상태야 한해도 불구하고 유독 45세나 된 이경수만 힘이 펴필 솟구쳐 한두 사람도 아닌 30여 명을 목졸라 죽였겠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고 탁 소장은 이 사건에 대해, "박순자 씨가 채권자들로부터 거둬들인 100여 원이 훨씬 넘는 거액이 어디론가 제3의 집단에 흘러 들어갔을 것이고, 채권자 폭행사건이 터지자 박 씨가 공지에 몰려 돈의 행방을 발설하면 그 제3의 집단이 과열되므로 박씨와 일당의 신도들은 빛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집단으로 자살한 것처럼 위장 살해하고 그 범인들은 도망을 쳤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본지 1988년 9월호 "오대양사건 1주년을 돌아보며"라는 제하의 글에서 고 탁 소장은 취재 당시 의심

스러운 배경을 설명했다. "책임자는 나에게 '이 사건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인지라 확대시키지 않을 방침'으로 협조해 달라'고 했다. 그때 직감적으로 이 사건은 정치권력의 배후가 있음을 감지했다"며 "충북 보은에서의 나에 대한 집단 폭행사건 직후, 보은경찰서의 한 간부가 부심료 '오대양 사건을 다룬다고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흘린 말에서도 이 집단폭행사건의 배후에도 통일교와 정세불명의 권력층이 도사리고 있음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대양 사건은 수사결론에 의혹이 가득한 사건이다. 공식적으로는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나 장기간 제사건으로 분류하고 재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현대종교' 9월호에서 볼 수 있다.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옥금수(玉錦水)

옥금수의 효능

천체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운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칫솔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이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복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 충치 예방
2. 풍치 예방
3. 잇몸 질환
4. 혀 살균
5. 편도 보호
6. 감기예방
7. 헛 기침 예방 (소금물 양치, 가글의 효능)

체험담

안산거주 김OO 성도의 어머니(84세)가 이 제품으로 양치질과 가글을 한지 보름만에 **풍치**를 비롯 잇몸질환이 개선되고 시린 증상이 없어지고 구취가 사라지는 체험을 했으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옥금수(소금물) 홍보 용품 활용을 희망하시는 교회와 성도님께서는 500ml 20pet-30pet 단위로 보내 드립니다. 500ml 20개 들이와 500ml 30개 들이 두 종류가 있으며 500ml 1pet 당 1,000원입니다. 수령하시는 교회 또는 성도님들께서는 주소, 성함, 연락처를 문자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보기간 동안(2017년 9월 1일-2017년 10월 31일)은 30%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거금대교 및 녹동해변, 고흥 인공섬을 걸으며 사랑의 교제 나눠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 구원의 사역 감당
스포츠선교위원회 걷기동우회 11차 모임

교단 스포츠선교회(위원장 김순구 목사) 신하 걷기동우회(회장 홍현철 목사) 회원들은 지난 8월 10일(목) 낮 12시 전남 녹동 녹동순복음교회(담임 백영자 목사)에서 11차 모임을 갖고 심신을 단련 하며 영육간의 건강함을 위해 기도했다.

모임에 앞서 드린 예배는 회장 홍현철 목사의 사회로 김명자 목사의 기도, 임영광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임 목사는 삼하 8:6-14 말씀을 본문으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신'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다윗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전하고 '이 같은 자세로 승리하는 목회자가 될 것'을 당부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조은혜 목사의 한금기도 후 이어 제목기도 시간에는 '마지막 때의 사명감당을 위해' 최남성 목사가, '교단발전과 부흥을 위해' 박흥렬 목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석현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으며 증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2부 행사로 녹동순복음교회(회원들을 위해 녹동교회에서 숙식을 정성껏 준비)에서 준비한 오찬을 함께한 뒤 거금대교 및 녹동해변, 고흥 인공섬을 걸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으며 오는 9월 2일 은혜와 진리동산에서의 모임을 기약하며 각자의 목양지로 향했다.



8월 월례회 및 덕신해변 야유회

대구경북지방회

대구경북지방회(회장 김영준 목사)는 지난 8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동해안순복음교회(담임 도명수 목사)에서 8월 월례회 및 덕신해변에서 야유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정진학 목사(대전 사랑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허만운 목사(순복음성산교회)의 대표기도, 총무 정진학 목사의 성경봉독, 부회장 도명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도 목사는 었 1: 17-23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도 바울처럼 신의 해와 계시의 영으로 마음의 눈을 밝히고 부르심의 소명을 따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으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



하자'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회계 윤철희 목사(행복한순복음교회)의 한금기도, 증경회장 강대진 목사(안동성곡교회)의 축복기도와 축도 후, 회장 김영준 목사(갈릴리온소망교회)가 실행위원회의 전달사항을 전하고 2부 야유회 행사 안내

로 1부 예배 순서를 마쳤다.

2부 야유회는 직전회장 신재영 목사(세김전교회)의 기도로 시작하여 동해안순복음교회에서 마련한 자연산 화와 매운탕으로 점심식사를 하고 정소를 옮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그대로의 덕신해변의 넓은 백사장을 마음껏 뛰며 사색을 하고 푸른 바다에 몸을 담그고 오랜만에 여유롭고 동역자 간에 화기에애한 시간을 가지며 그간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깨끗이 씻어 버렸다.

이날의 별미로 갈릴리온소망교회에서 준비한 가리비와 백합 조개를 훔쳐 직접 구워 먹으며 서로 섬김으로 육신에 감동해 행복과 기쁨을 더하여 주는 은혜가 넘치는 즐겁고 복된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지방회장 김영준 목사의 마무리 기도도 월례회와 덕신해변에서의 야유회 모든 일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각자의 목양지로 향하였다.



여름수련회 갖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끽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신동숙 목사)는 지난 8월 15일(화) 경기도 팽성시 팽성을 안정순 한로14에 위치한 복있는교회(담임 서경오 목사)에서 여름수련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서경오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임경영 목사(하늘빛교회)의 찬양 인도, 김진태 목사(선한열매교회)의 대표기도, 오용득 목사(진리외빛교회)의 성경봉독, 목회자사모일동의 특송 지방회장 신동숙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신 목사는 느 13:4-9 말씀을 본문으로 '내 안에 도미야'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목회자들의 마음에 있는 도미야와 같은 존재를 제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참여한 회원들에게 선포하였다.

이어 양현희 전도사(심자기승리교회)의



한금기도, 증경회장 김남수 목사(맑은빛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미리 예약한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이동하였으며 이동 중에도 증경회장 정석현 목사와 김진태 목사의 진행으로 즐거운 게임과 은혜로운 찬양과 간증 등으로 즐거움을 더했다.

이날 회원들은 충남 서천군 마량면에 위치한 곳, 200여 년 전에 영국함선이 입항하

여 성경을 전한 곳인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를 방문하였다.

서해 간척지의 혁신인 새만금도로를 달리면서 변화하는 서해 간척도로를 돌아보았으며 배산 해수욕장을 경유해 체성강을 둘러 해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멋진 바위와 바다를 배경으로 개별 및 단체사진 기념촬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였다.

다음으로는 부여의 백마강 구두래 선착장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낙화암을 순방하여 옛 백제 시대 때 이끈 역사의 회상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점심과 저녁은 임원회에서 미리 준비하고 증경회장들의 수고와 대접으로 군산의 횡전과 구두래의 찜뎡에서 맛있는 식사를 했다.

끝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고 늦은 저녁 시간 복있는교회로 복귀하여 아쉬움의 작별을 하고 모두 교회와 가정으로 귀가하였다.



동성애·동성혼 개헌논의에 대한 포럼 열려

이는 국가와 사회 전체를 흔드는 개헌논의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내년 지방선거 시점을 목표하여 개헌논의가 진행 중이다. 개헌은 정치 개혁이 목표이지만 여기에 편승하여 여러 가지 '끼워 넣기'식 내용들도 다수 들어가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판도라의 무덤이 열리듯 국가(國家)를 뒤흔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문제점 가운데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결혼의 의미를 남녀 간에서 동성 간으로도 인정하는 헌법을 만들어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의 규정을 양성(남녀)평등으로 하고 있는 것'을 '성 평등'으로 함으로써 결혼이 이성 간의 결합뿐만 아니라 다른 성간의 결합도 인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동성애·동성혼'도 인정하려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차별금지 조항을 늘려 열거 규정을 명백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 제2문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새롭게 개정하려는 내용에는 항목을 추가하고, 거기에는 '등'을 넣으면 얼마든지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행법 제22조 6(추행) 조항을 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개인의 권리나 자유를 제한하게 되어 있다. 그러한 예를 두는 것을 '군대 내 동성애 문제'로 살펴보면,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의 확립을 위해,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동성애 지지자들은 이를 '성적 자기 결정권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로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민의 기본권 주체를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 제11조에는 국민의 기본권의 주체가 '국민'으로 되어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만이 기본권을 갖는 것인데, 이를 '시민'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리되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에게도 주권이 주어지고 심지어는 폭력의 종료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무제한 주권이 주어지면, 우리나라에 혼란과 공멸이 오지 말라는 보장도 없게 된다.

다섯째는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적 기관'으로 격상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건국 때부터 삼권분립을 분명히 하여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이미 구성된 헌법 기관이 있는데 여기에 또다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8월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는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모임에서 "동성애·동성혼 개헌 논의와 한국 헌법"이란 주제로 학술 포럼이 열렸다. 즉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헌법 개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대 최대권 명예교수(법학부 헌법학)는 "개헌의 빌미로 삼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치의 잘못이지 헌법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정당화하기 어려운 아이디어를 헌법에 올리려는 개헌 논의가 여럿 있고,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성애·동성혼이라고 판단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헌법은 합부로 아무것이나 집어넣어 헌법화할 수 없다. 즉, 국민의 기본권만 넣을 수 있으며 그 기본권은 전(前)국가적, 초(超)국가적, 자연권으로 간주하는데, 과연 동성애·동성혼이 이와 같은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결론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최 교수는 또, 외국의 사례를 따르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무조건 외국의 문화와 전통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으며, 외국의 사례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헌법 차원인지, 하위 규범인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 면에서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분명 국가에서 헌법 조항에 동성애·동성혼을 합헌법화 한 사례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우리의 수천 년 동안 전승해온 전통문화로는 양성(兩性)으로 이루어진 가족문화이지 동성혼 문화는 결코 아니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동성애·동성혼의 합법화·합헌법화는 우리나라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공공의 이익(公益)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고 경고하였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영화 전북대 교수(법학전문

대학원 헌법학)는 "지금까지의 모든 헌법정신은 가족관계의 전제조건으로써 혼인은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있으며, 1919년의 '베임파르 헌법'과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50년 '유럽인권규약'의 제12조, 1968년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의 제23조에서도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제헌 헌법'과 196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도 이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지난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도 미국은 헌법에서 혼인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고, 헌법 기초자들은 주 정부에게 남편과 아내의 모든 가족관계를 일임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수의 의견' (당시 5:4로 가까스로 동성혼이 통과됨)인, '혼인의 정의는 전통적인 남녀의 결합에 한정하고 동성혼까지 확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오늘날 동성혼은 혼인과 가족에 포함된 인류 문명사에서 역사적, 윤리적, 사회적, 제도적 근원을 통째로 부인하고, 혼인을 개인의 선택의 자유, 또는 자율성에 근거하는 전적으로 개인주의만 고집하고 있다"고 우려하였다.

정 교수는 이러한 행위는 공동체의 가치나 타인의 인간존엄을 침해하게 될 것이며 동성애·동성혼 주장은 '반 생명 문화'를 확산시켜 인간존엄과 사회의 공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윤선필 홍익대 교수(법학부 헌법학)는 "동성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동성혼을 개인 자유의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혼인 및 가족 제도의 헌법상 의미 및 공익적 관점,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인권존중의 측면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날 모임은 200여 명의 전문가 및 법조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입주의 여지없이 자리를 지키면서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순서는 제창규 교수(한동대)의 인사발과 최현필 경희대 교수(외과대)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의 인사발, 권성 헌법재판소 전 재판관의 격려사가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홍익신 건국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최대권 교수(전 서울대)와 정영화 교수(전북대)가 발제하였고, 토론에는 고본현 숭실대 교수(법학부 헌법학), 기현석 명지대 교수(법학과 헌법학), 윤선필 홍익대 교수, 정상우 인하대 교수(사회교육학과 헌법학), 김지연 대표(자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 등이 참여하였다.

앞으로도 개헌 논의 과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과 타격을 줄 시안에 대하여 앞서서 언급된 시간들을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개헌'이 '개혁'이 되지 않도록 전 국민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사설

예수항기 가득한 9월 되게 하자

무더위가 가고 코스모스가 들판을 화사하게 수놓는 9월이 왔다. 교단 신학교들도 개학하여 부름 받아 나선 종들이 새 마음으로 새 학기를 맞이한다. 그런가 하면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자리 잡은 전국여교역자국 추계성령충만수련회도 9월 18일-20일 은혜와 진리수양관에서 열린다. 부름 받은 귀한 종들이 새 마음으로 각성하고 앞장서서 예수 항기가 온 세상에 넘실대는 9월이 되게 해야겠다.

오늘의 드보라 선지들이요 에스더들이여 여종들이여 말로 사명이 더욱 귀중하다. "말세에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행 2:17-18) 여성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시대다. 대학은 여성 졸업자가 더 많고 남성 위주의 군인, 법관, 의사, 비즈니스 등 중요 분야에 여성의 역할이 현저히 커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추세다. 고향 떠난 나그네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길 잃은 심령들은 어머니 같은 섬세하고 따스한 돌봄의 손길을 더욱 그리워한다.

남성들 보다 더 아름답고 사랑에 넘치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종들이 바로 여성교역자들이다. 많은 교단이 있지만 우리 예회성만이 특히 여교역자들이 별도의 수련회로 모여 사명을 갈고 닦으니 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가. '주여 성령의 불을 주소서' (눅 12:49-50)라는 주제처럼 올해 여교역자 추계성령충만수련회에 성령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히 임하기를 소원한다.

온 성도들도 종말적 불신앙이 팽배해 가는 이 나라

를 위해 기도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도 새바람을 일으키는데 열정을 다해야 하겠다.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부름 받은 종들의 사명의식은 더욱 귀중해져만 간다. 믿음이 식어가는 세태 속에 복음의 권능은 더욱 강력히 역사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신다.(롬 5:20)

지난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소명 받은 종들이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밤에는 내일의 목회자, 선교사의 꿈을 꾸어가 가는 야간신학 사명자가 많았다. 그러나 믿음을 보기 어려운 (눅 18:8) 말세지말의 세태 속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명자 수도 줄어들어 신학생도 그 수가 귀한 시절이 되었다. 그만큼 오늘의 사명자들의 가치와 위상은 더욱 드높아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상은 문화적다원화 시대가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도 더욱 물질주의로 빠져 가는 가운데 기독교신앙에도 종교혼란주의가전염병처럼 퍼져나가고 있는 세태이기 때문이다.

다음 달 10월은 종교개혁 5백주년을 기념하는 달이다. 종교개혁 5백 주년이라는 뜻깊은 시대에 주님의 종의 길을 가는 우리들은 어느 때보다 더욱 성령충만하여 막중한 자기 혁신과 개혁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는 연합 학술대회를 갖는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계획하고 있다.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희망 사상은 "웃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을 2:13)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동성혼 합법화 헌법개정, 온 교회가 저지하자

우리나라가 인정하는 지구상의 국가 수는 현재 224개국이고 유엔에 가입한 회원국은 193개국이다. 이들 가운데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나라는 지난 6월 독일의회가 동성혼 인정을법제화함으로써 23개 국가가 되었다.

아직은 천문을 역행하는 나라들이 많지는 않지만 10% 정도의 국가가 이를 법제화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일찍이 동방예의지국으로 칭송되던 우리가 하늘을 거스르는 나라 속에 기암

흔하여 종족을 보존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창조질서이다. 만일 이를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고 인류는 무서운 종말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헌법개정특위가 8월 29일부터 한 달 동안 전국 16개 시도를 순회하며 헌법개정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를 초월하여 하나가 되어 동성혼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헌법개정이라는 천문을 역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기도하고 저항해야 한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영평로 22 다빌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본문 요한복음 1장-5절

요한복음 주제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3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람에게 오셨고, 곧 말씀이신 하나님이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셔서 우리들을 하늘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는 전제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목적).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이끌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 우리 세 개가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초점이며, 성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영광, 기쁨, 평안, 당신의 영화로움을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축복받은 것, 질병,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리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만이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일리야나, 진리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부분은 전체가 될 수 없고, 일리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개천에 용이 난다라는 말은 일리이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되려면 개천에서만 용이 나와야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다는 것은 일리입니다. 하나님부터 백까지 전체를 믿는 것이 진리이지 하나님 틀려도 진리가 아닙니다. 죄의 삶은 사망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원정 목사

다메섹순복음교회 담임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 등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지립 교회의 목회자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강사료는 무급으로 하되 간단한 중식은 교회에서 제공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세계선교연합회
청년봉사선교회

주최 '제1회 청년 IMCR 대회' 폐막

10개 국가 차세대 교회지도자들 참석... 강렬한 영적 도전 받고 사명감 충만

'제1회 청년 IMCR 대회(International Ministries and Church Revival Conference 2017)'가 은혜리진 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에서 세계선교연합회와 청년봉사선교회 주최로 8월 18일(금)부터 21일(월)까지 3박 4일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 열렸다.

해외 선교사와 목회자들이 아닌 차세대 교회지도자가 될 청년들을 대상으로 처음 개최한 이번 대회에 호주, 스리랑카, 부룬디,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인도, 네팔, 페루, 우간다 10개 국가에서 은혜와진리교회 해외 선교지와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협력 교회의 청년사역자와 리더 40여 명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세계선교와 교회부흥의 회 총재 조용목 목사의 특강을 비롯 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참석 인원과 일정을 줄여 알차게 기획되고 심도 있게 진행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강렬한 영적 도전과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고 교회부흥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명감으로 충만케 되었다.

숙소인 전원성전에서 여장을 풀고 18일(금) 안양성전 아가페성전에서 개회식과 함께 공식 일정이 시작되었다. 식전에 대회 참가비 청년들의 진행으로 국가별 참가자 소개와 인사, 레크레이션, 나라별 찬양 등 국적을 초월하여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로운 순서를 가진 후 오후 3시 30분 개회식이 시작되었다.

선교위원장 권영호 장로의 사회로 각국 국기를 필두로 한 대회 참가자들의 입장, 미얀마 선교사인 아웅핑팅 목사의 기도, 본교회 세계선교연합회 '그레이트 앤 트루스 미션콰이어'의 특별 찬양, 조용목 목사의 환영사, 참가자들을 대표한 인도 은혜와진리 미션센터 폴 데이비 전도사의 감사 순서로 개회식이 진행되었다.

개회식 후 봉사단장 박남수 장로의 기도, '그레이트 앤 트루스 미션콰이어'의 찬양에 이어진 특강에서 조용목 목사는 복음의 핵심이 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 강의를 하였다.

조 목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의 그 지극히 귀하고 중대함을 강조하며 이를



지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그 신령한 지식과 함께 풍성한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 부흥과 복음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되도록 축복했다.

특강 후에는 만나실에서 환영만찬이 열려 참가자들은 조용목 목사 내외분과 세계선교연합회 국가별 선교회 회장 장로, 통역 봉사자, 청년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가진 후 금요일예배에 참석하여 세계선교와 교회부흥을 위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19일(토)에는 판교, 영통, 동탄성전 교회당을 차례로 방문하고 야외 활동으로 진목을 도모하였으며, 20일 주일에는 안양성전에서 주일 4부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내 여러 봉사 부서의 활동을 참관하였다. 청년들은 조용목 목사의 열려 넘치는 설교말씀에 감화되고, 종일토록 교회와 성도를 섬겨 헌신 봉사하는 평신도 봉사자들의 모습에서도 깊은 감명을 받았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봉사 부서의 많은 회원들이 이들 차세대 교회지도자들을 뜨겁게 환영하며 격려해주었다.

이어서 참가자들은 카이노스성전에서 공연 중인 GNTC 뮤지컬 '다 이루었다'를 관람하며 형언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받고 단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주일 저녁에는 조용목 목사와의 질의응답의 시간,



수료식, 교제와 간증의 밤 시간이 이어졌다. 조용목 목사는 차세대 교회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교회부흥의 비결 및 기타 다양한 질문에 답하며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명감과 행복감으로 충만케 해주었다.

간증 시간에는 앞다투어 조용목 목사의

메시지와 시종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예배와 기도회, 그레이트 앤 트루스 미션콰이어의 찬양, 성도들의 뜨거운 환영과 환대. 청년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에서 듣고 보고 느낀 점들을 각각 이야기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였다.

21일(월) 모든

일정을 마친 참가자들은 출국에 앞서 조용목 목사와 세계선교연합회와 청년봉사선교회 회원들을 비롯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번 대회에서 받은 은혜와 귀한 경험을 가지고 용기있게 하여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기쁘게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다.

